
Vol. 32
2014. SPRING

미르진은
미르를 찾는 여러분들께
무료로 배포되고 있습니다.

MIRZINE





사람이 꽃보다 아름다워

누가 뭐래도 당신이 꽃보다 아름답습니다

theme issue

사람이 꽃보다 아름다워



4 꽃 피우다

꽃향기로 퍼지는
행복바이러스
권유미 서양화가



10 꽃 만들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직업
이다건 플로리스트



14 꽃 취하다

봄꽃이 있는 휴양마을
양평 가루매마을 외

hero

작은 영웅

16 영웅 인터뷰 1

진료란 서로 소통하며
마음을 나누는 것

통영 미르치과병원 장길용, 조기영 원장

22 영웅 인터뷰 2

상상을 현실로,
불가능을 가능으로

박세상 불가능공장 공장장



Culture & Life

26 문화 응답하라! 복고열풍

30 교육 존경받는 부모

34 세상 들여다보기 재능기부 스토리

With 미르

36 미르 news

통권 제32호
발행인 류경호
발행일 2014년 4월
발행처 (주)미르네트워크 대구광역시 중구 삼덕2가 149-132

꽃향기로 퍼지는 행복바이러스

서양화가 권유미

향긋한 꽃내음 물씬 풍기는 어느 봄날,
대구시 수성구 중동에 자리한 권유미 화가의
화실을 찾았다.
수많은 캔버스에서 피어난 꽃들로
눈길을 사로잡은 화실은
마치 꽃밭에 있는 듯한 착각을 불러일으켰다.
8년째 꽃을 주제로 작품을 발표하고 있는
권 화가는 실제보다 더 아름다운 꽃의 강렬함을
상상력으로 빚어내고 있었다.
환한 미소와 함께 다정한 목소리로
이야기하는 그녀는
예쁜 얼굴만큼이나 사랑스러운 성격의 소유자였다.
그야말로 꽃보다 아름다운 사람,
권 화가의 이야기를 시작한다.







● 행복을 전하는 꽃

권유미 화가는 자타가 공인하는 실력파다. 초대 개인전 16회, 단체전·국제전·초대기획전 참여만 200여 회에 달한다. 이뿐만이 아니다. MBC 즐거운 나의 집, 로얄패밀리, KBS 웃어라 동해야, TBN 로맨스가 필요해 등 권 화가의 작품은 인기 TV 드라마에 등장하며 대중의 유명세를 타기도 했다.

과연 그녀의 작품이 사람들의 사랑을 받는 이유가 무엇일까. 아마 그것은 권 화가의 작품을 보면 행복해지기 때문이다. ‘꽃’이라는 소재가 주는 아름다움도 있지만, 화가만의 독특한 색감과 상상으로 재창조된 풍성한 꽃은 보는 이들을 저절로 즐겁게 해준다. “자연의 아름다움을 가장 잘 함축하고 있는 것이 ‘꽃’입니다. 하지만 수세기에 걸쳐 수많은 화가들이 그렸던 ‘꽃’이란 주제가 화가 자신에게는 도전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랜 세월 고민하면서 저만의 조형언어를 찾아 꽃을 표현하기 위해 노력했죠. 그 결과 독특한 색채와 아름다움으로 장식된 꽃은 이제 제 작품의 중심이 되었습니다.”



● 꽃으로 표현하는 내면세계

그녀는 자연 그대로의 모습으로 모방하지 않는다. 작품에 등장하는 꽃은 심미안적 대상인 동시에, 우리의 내면세계를 표현하는 매개체로 본다.

“상상력을 이용해 실제보다 더 아름다운 꽃을 빚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작품 속 꽃은 주위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이름 모를 들꽃 같기도 하고, 친숙한 장미나 백합처럼 보입니다. 이렇듯 이미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친숙하고 익숙한 꽃이라는 착각을 불러일으키게 하는 꽃들은, 현실과 비현실을 넘나들며 미묘한 매력을 발산하죠.”

권 화가는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감성으로 꽃이 가지고 있는 화려함과 아름다움뿐 아니라, 향기까지 시각화하고 있다. 이를 통해 내면세계에 자리 잡고 있는 그리움, 꿈, 소망 같은 갈망을 드러낸다.

그녀의 꽃은 밝다. 빨강, 보라, 노랑, 분홍 등 화사한 색깔의 꽃이 모두 활짝 피어 있는 데다, 커다란 화병에 한가득 담겨있다.

“제 작품 속 화병에는 외로운 꽃이 없습니다. 모든 꽃들이 항상 삼삼오오 옹기종기 모여 있기에 정겹죠. 그렇기에 특별히 잘난 꽃도 없습니다.”





제 작품 속 화병에는
외로운 꽃이 없습니다.
모든 꽃들이 항상 삼삼오오
옹기종기 모여 있기에 정겹죠.
그렇기에 특별히
잘난 꽃도 없답니다.



● 즐기되 생각하라

권 화가는 작품을 그릴 때 가장 중요한 것은 ‘개성’이라고 강조했다.

“제가 가장 좋아하는 꽃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소위 원색이라 불리는 색감을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작가와 차별화될 수 있는 것을 찾아보다 금박과 자개라는 오브제를 이용했죠. 이것들은 화려한 꽃에 화려함을 더했습니다. 그 속에는 미묘하게 몽환적인 느낌이 묻어있죠. 특히 자개는 그 자체 또한 회화성이 강합니다. 모든 그림에 똑같은 소재를 사용하더라도 자개의 모양이 각자 다 다른 모양을 띠고 있기에 그것이 바로 회화성과 맞아 떨어지는 부분이죠.”

계속해 그녀는 이야기를 이어나갔다.

“요즘은 아마추어도 몇 년 열심히 그리면 잘 그린 그림을 그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개성 있는 그림은, 화가 자신만이 할 수 있죠. 지금은 아이디어시대입니다. 예술뿐 아니라, 사회 전반에도 새로운 생각이 삶을 윤택하게 하고 세상을 바꾸는 힘이 됩니다. 그렇기에 자신만의 개성 있는 그림을 찾아 ‘즐기되 생각하라’는 생각으로 붓을 잡고 있습니다.”





이어 권 화가는 오는 4월 22일에서 27일까지 수성아트피아 호반갤러리에서 열리는 싱그러운 봄 향기 초대전 소식도 전했다.

“봄내음과 함께 자연의 아름다움을 전할 수 있는 전시를 준비 중입니다. 저는 화려하고 밝은 그림을 보면 기분이 좋습니다. 아름답고 따뜻하고 화려한 걸 좋아하는 저이기에, 관객들에게도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작품에서 관객들이 아름다움을 느끼는 것만으로 충분히 행복합니다. 그렇기에 좀 더 많은 분들이 전시회에 오셔서 꽃향기와 따뜻한 차 한 잔의 여유를 즐기셨으면 좋겠습니다.”

● 고마웠던 미르와의 인연

마지막으로 그녀에게 ‘미르’와의 인연에 대해 물었다.

“2006년 대구미르갤러리에서 초대전을 가진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환자들은 물론, 많은 분들이 해주셔서 정말 감사했죠. 그 인연으로 평소에도 미르치과를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습니다. 지역을 위해 지속적인 사회공헌 활동은 물론, ‘대구시 의료관광 선도의료기관’에 선정되는 등 활발한 활동을 하시잖아요. 그런 소식을 들을 때마다 마음을 다잡곤 한답니다. 분야는 다르지만 저 역시 다양한 활동을 하면서 더욱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직업



플로리스트 이다건

‘꽃’은 저절로 미소 짓게 하는, 그래서 행복하게 만드는 힘을 가지고 있다. 이름만 들어도 기분 좋아지는 꽃과 함께하는 삶은 얼마나 행복할까. 플로리스트로 활동하고 있는 이다건 씨는 우아하고 여성스러운 외모만큼 뛰어난 실력을 자랑한다. 따스한 봄 햇살이 가득한 요즘, 꽃을 활용한 간단한 장식으로 향긋한 봄의 정취를 집안으로 들여오는 건 어떨까.

● 꽃을 통해 이야기를 만드는 예술가

“단순히 아름답게 장식하는 것만 아니라, 작품마다 의미를 부여하고 이를 통해 저만의 생각을 전하고자 합니다. 열리는 목적과 행사장 분위기에 따라 꽃의 의미, 색깔, 모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죠. 특히 충분한 상담을 통해 용도에 맞는 디자인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웃을 때마다 초승달 모양의 눈이 매력적인 플로리스트 이다건 씨는 특별한 날을 더욱 아름답게 해준다. 이 씨가 섬세한 손길로 만든 꽃다발은 어느 누군가에게 감사와 사랑, 축복이 꽂 찬 의미가 된다.

그녀는 ‘더 아일랜드 플라워’ 블로그 <http://theislands.blog.me>를 통해 꽃

을 좋아하는 사람들과 소통하며 플라워 데코레이션, 파티 스타일링 등 꽃 상담과 주문을 받고 있다. 고객들의 요청마다 작품을 만든다는 생각으로 섬세하게 작업하기에, 그녀를 찾는 단골 고객들이 많은 것이다.

“꽃은 사람들을 행복하게 만드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꽃 선물은 추천합니다. 저 역시 꽃과 함께하면서 마음이 여유로워지고, 사물을 보는 시각도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좀 더 많은 분들이 꽃 한 송이로 마음의 여유를 느꼈으면 합니다. 앞으로도 꽃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행복을 전하겠습니다.”

봄을 부르는 꽃 인테리어

1

플라워박스

재료 : 헤라, 부루트(장미), 화이트 리시안, 핑크 리시안, 볼로초, 유칼립투스

작은 선물이라도 꽃과 함께 플라워박스로 선물한다면 더 정성스러운 선물이 된다. 박스 안에 포장지를 먼저 세팅한 후 플로럴폼을 넣는다. 꽃들은 줄기를 짧게 잘라 장미, 리시안, 볼로초, 유칼립투스 순으로 꽂아준다. 향수나 선물을 넣을 경우 공간을 미리 비워두고 꽃을 꽂는다.



봄을 부르는 꽃 인테리어

2

장미꽃다발

재료 : 블랙뷰티(장미), 비전, 루스커스(그린), 유칼립투스

장미와 그린종류로만 디자인한 핸드타이드이다.
고급스런 장미로 자연스러우면서도 세련된 스타일.

봄을 부르는 꽃 인테리어

3

수국 꽃바구니

재료 : 수국, 지오지오(장미), 오션(연보라색 장미), 핑크 리시안, 아게라덤, 레몬잎, 신유칼리

컬러수국이 들어간 꽃바구니는 고급스런 느낌으로 준다. 바구니에 플로럴폼을 세팅한 후 수국, 레몬잎, 장미, 리시안 순으로 꽂는다. 아게라덤으로 포인트 주고신유칼리로 마무리한다.



봄꽃이 있는 휴양마을

바야흐로 여행의 계절이다. 사랑살랑 봄바람이 불기 시작하면서 사랑하는 가족, 친구 연인과 손잡고 떠나기에 딱 좋다. 때마침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아름다운 봄꽃도 감상하고 다양한 체험도 즐길 수 있는 '봄꽃이 있는 농촌체험 휴양마을'을 선정, 발표했다. 지금부터 대한민국 곳곳 봄꽃이 있는 휴양마을을 소개한다.

새하얀 배꽃이 흠날리는 양평 가루매마을

배꽃이 필 무렵 마을에서 생산한 배즙이 어떻게 재배되고 만들어지는지, 봄에 보았던 배꽃이 어떻게 배가 되었는지 보기위해 도시민들이 찾으면서 가루매 농촌체험마을이 시작되었다. 배꽃은 유난히 희고 고운 흰 꽃잎을 가지고 있어 봄바람이 부는 날에는 배꽃이 흰 눈이 되어 내리는 풍경을 볼 수 있다.

체험거리 / 배꽃수정, 딸기 수확, 고무줄 총 만들기, 감자전 만들기

먹거리 / 시골밥상, 감자전

볼거리 / 용문사, 두물머리, 세미원, 양평곤충박물관, 민물고기 생태학습관

예약 및 홈페이지 / 031-774-3608 / <http://www.garumae.com>



행복의 꽃말이 어울리는 보은 하얀민들레마을

대청호 최상류에 위치하며 대청댐으로 흐르는 회인천을 끼고 사방이 산으로 둘러 쌓여있는 전형적인 산골마을이다. 나무들에서 피어나는 꽃들도 있지만, 푸석푸석한 새봄의 흙을 밀어내고 새싹으로 돋아나 꽃을 피우는 들판의 꽃들도 많다. 들판의 많은 꽃들 중에 단연 봄의 들판을 지배하는 꽃이라면 민들레를 빼 놓을 수 없다. 특히 하얀 민들레가 동네에 지천으로 널려있으며 마을 집집마다 고목이 된 감나무가 빼곡하게 들어차 정겨움을 더해 준다.

체험거리 / 민들레화분 만들기, 400년 된 초가집에서 조선시대 생활체험(절구, 맷돌, 다듬이), 다슬기 잡기, 농작물수확체험

볼거리 / 오장환문학관, 청남대, 속리산, 법주사, 삼년산성, 서원계곡

먹거리 / 민들레밥상, 토종닭요리

예약 및 홈페이지 / 070-7764-9523 / <http://www.busuri.com>



분홍빛으로 물들이는 강릉 복사꽃마을

주문진 바닷가에서 4km내에 위치해 있는 숨은 진주와 같은 무공해 청정마을인 복사꽃 마을은 영동최대 과수마을이다. 복숭아, 자두, 배, 사과 등 신선한 과일과 쌀, 고추, 옥수수, 감자, 채소 등을 생산한다. 복사꽃축제가 열리는 봄이면 동네 곳곳에 복사꽃이 활짝 피어 진분홍빛으로 마을이 물든다.

체험거리 / 봄나물 채취, 머그진만들기, 허브비누 만들기, 손수건 천연염색

먹거리 / 손두부, 옷닭, 삼계탕, 생태찌개

볼거리 / 주문진, 주문진해수욕장, 소돌해수욕장, 아들바위공원, 삼형제봉, 삼교리저수지

예약 및 문의 / 033-661-5208 / <http://dohwa.invil.org>



아름다운 벚꽃길이 있는 청양 칠갑산산꽃마을

충남의 알프스라 불리는 561m 고지의 칠갑산 남서쪽 자락에 위치한 마을로 동쪽으로는 월봉, 서쪽으로는 관모봉, 남쪽으로는 천수봉, 북쪽으로는 말봉 산이 마을을 에워싸고 있다.

한국의 아름다운 길로 선정된 벚꽃길이 마을을 지난다. 벚꽃이 필 무렵 매년 마을 축제행사에 많은 도시민들이 다양한 체험을 즐긴다. 울긋불긋 화려한 꽃향기 속에서 고향의 향수를 느낄 수 있다.

체험거리 / 꽃사탕 만들기, 꽃비빔밥 만들기, 화전 부치기, 야생화심기, 꽃마차타기, 연꽃관찰, 계절별농산물 체험

볼거리 / 장곡사, 칠갑산, 출렁다리, 국내최대 고운식물원

먹거리 / 꽃비빔밥, 화전, 알밤, 연잎삼겹살, 연잎밥

예약 및 홈페이지 / 041-944-2007 / <http://cafe.daum.net/cy0401>



황홀한 금빛 물결의 남해 두모마을

'큰 항아리처럼 담긴 바닷가'란 뜻의 '드므개'라는 마을 이름이 '두모마을'로 바뀌었다. 봄에는 유채꽃, 가을에는 메밀꽃이 장관을 이룬다. 바닷가 가까이와 캠핑장이 있어 아이들과 물놀이하기에도 안성맞춤이다.

체험거리 / 캠핑장, 시카약 체험(스토쿨링, 레프팅), 개매기 체험, 갯벌 바지락 캐기, 노도 문화체험, 친환경쌀·마늘 농사체험, 금산등반

볼거리 / 금산, 노도 김만중 유배지, 서불과차, 마늘나라, 상주은모래비치

먹거리 / 활어회, 전복죽, 생선미역국, 물메기찜, 해초비빔밥

예약 및 홈페이지 / 010-8500-5863 / www.du-mo.co.kr



진료란 서로 소통하며 마음을 나누는 것

통영미르치과의원
장길용, 조기영 원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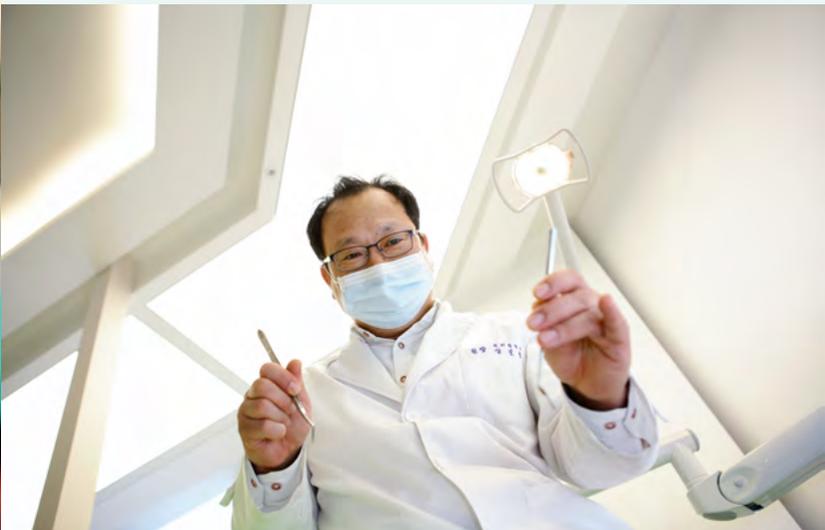


한국의 나폴리라 불리는 아름다운 항구 도시, 통영. 시인과 소설가, 음악가, 화가 등 많은 예술가들이 이곳, 통영에서 예술혼을 불태우기도 했다. 지금도 통영에서는 매년 봄이면 통영국제음악제가 열린다. 철거위기에 놓였던 동피랑 마을을 시민의 힘으로 아름다운 벽화마을로 만들어 살려내기도 했다. 그래서 통영은 예향이다. 통영에서는 사람도 풍경을 닮아가나 보다. 경치보다 사람이 더 아름다운 곳이 통영인지도 모르겠다. 그래서일까 통영은 사람의 마음을 설레게 하는 매력을 지녔다.





조 원장은 오래전부터 큰 그림을 그려왔다.
 변화하는 시장 환경에서 살아남으려면
 병원도 경쟁력을 키워야 하며
 대형병원으로 변모는
 불가피하다고 생각했던 것이다.
 그래서 15년 전부터 동료 의사들과
 스터디를 하며 연합형태의 병원을 준비했다.



서로 버팀목이 되어

봄이 오는 길목에 통영을 찾았다. 통영시 무전동에 위치한 통영 미르치과병원. 작년 봄 새롭게 문을 연 이곳은 장길용 대표원장과 조기영 원장, 신재성 원장 등 세 명의 원장이 진료를 맡고 있다. 가장 최근에 미르네트워크의 가족으로 합류하게 된 통영 미르는 남다른 사연을 지녔다.

장 원장은 통영에서 오랫동안 치과개원의로 활동한 부친을 이어 치과를 운영해왔다. 조 원장은 통영과는 멀리 떨어진 군산에서 30년이 넘게 치과를 운영해왔다. 이렇듯 각자의 지역과 영역에서 오랫동안 활동을 하던 두 원장이 어느 날 의기투합하고 새롭게 출발한 것이다. 먼저 제안을 한 것은 조 원장이다. 이를 장 원장이 흔쾌히 받아들인 것. 두 원장은 서로 동서지간이다. 그래서 마음을 모으기가 좀 더 쉬웠는지도 모른다. 장 원장은 이를 통영미르치과만의 장점으로 꼽기도 했다.

“서로 동서지간이다 보니 진료를 할 때 서로 간의 소통이 잘 되는 편이에요. 또 서로에 대한 믿음을 바탕으로 도와가며 환자중심적인 진료를 펼칠 수 있는 것이 큰 장점인 것 같아요.”

또한 함께 일을 하니 정보도 신속하게 나눌 수 있고 항상 의지가 되어서 좋다고 했다. 조 원장 또한 서로 장점은 받아들이고 단점은 보완할 수 있어 좋으며 늘 서로의 좋은 점을 보려고 한다고 했다.

성실함으로 세상을 살아가고

장 원장의 아버지인 장남석 원장은 통영에서 40여년간 ‘장치과’ 병원을 운영해왔다.

“처음에는 아버지의 병원으로 들어가서 일을 하려고 했었죠. 하지만 너는 너대로 병원을 하라고 해서 따로 개원을 했는데 이듬해 아버님이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제가 병원을 접고 아버지 병원을 맡아서 했죠. 그때가 93년도이니 한 20년을 했네요.”



진료를 할 때 서로 간의 소통이 잘 되는 편이에요. 또 서로에 대한 믿음을 바탕으로 도와가며 환자 중심적인 진료를 펼칠 수 있는 것이 큰 장점인 것 같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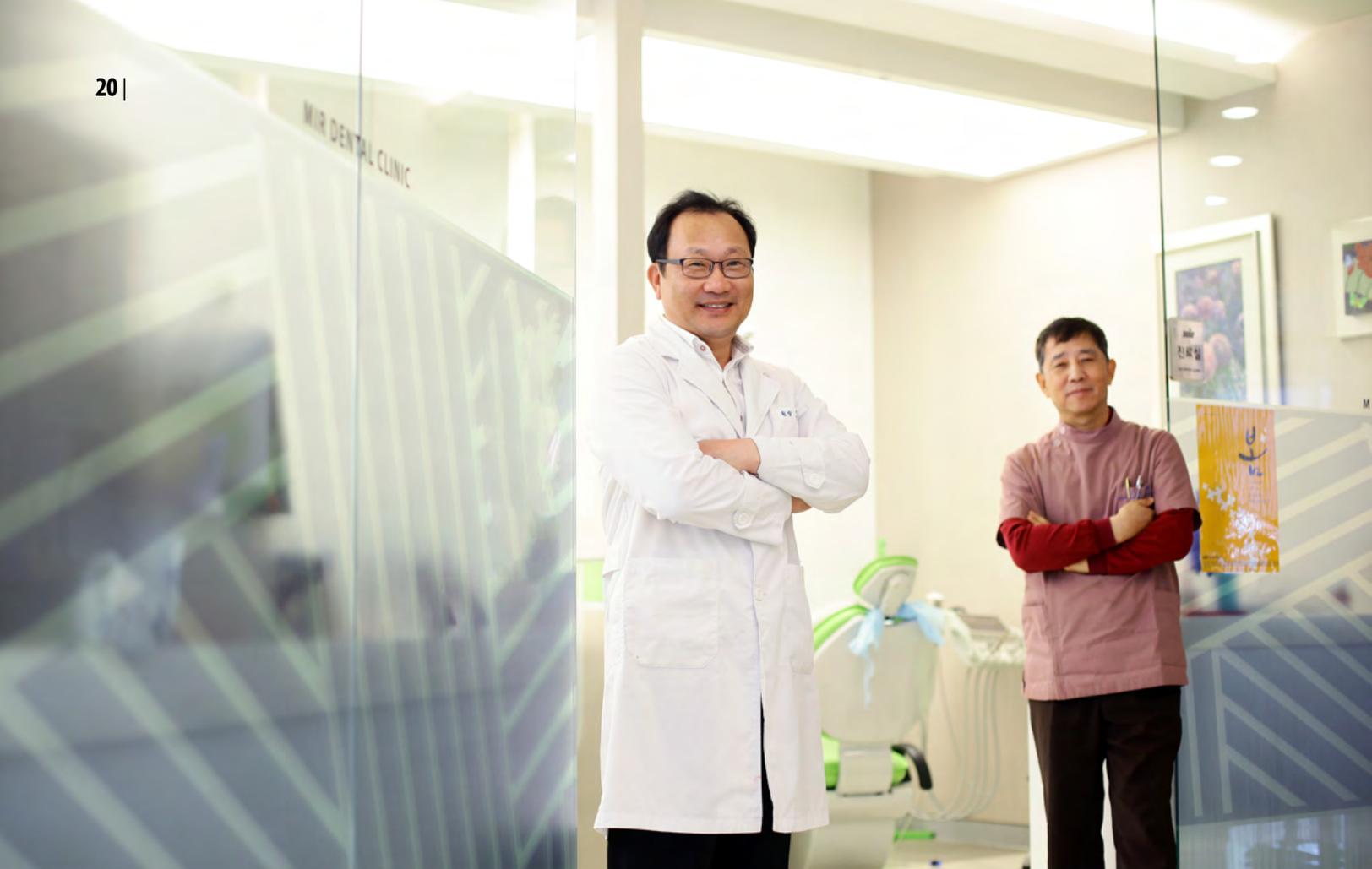
장 원장이 기억하는 아버지는 무척 성실한 분이였다. 이웃에게 늘 관심을 기울이고 지역에서도 꾸준하게 봉사활동을 펼쳤다. 아버지를 따라가기에는 아직도 부족한 부분이 많다는 장 원장은 존경하는 인물로 서슴없이 아버지를 꼽는다. 장 원장도 20년 전부터 정신지체장애우 수용시설인 자생원 등에서 봉사활동을 펼치는 등 매년 여러 기관들과 연계해서 봉사활동을 해오고 있다. 장 원장은 성실함이야말로 세상을 살아가는 가장 올바른 방법이라며 성실을 강조했다.

꿈은 도전의 원동력

조 원장은 오래전부터 큰 그림을 그려왔다. 변화하는 시장 환경에서 살아남으려면 병원도 경쟁력을 키워야 하며 대형병원으로 변모는 불가피하다고 생각했던 것이다. 그래서 15년 전부터 동료 의사들과 스터디를 하며 연합형태의 병원을 준비했다.

“지금은 연합치과들이 많이 생겼지만 당시 군산에는 전혀 없었어요. 전부 작은 개인병원들이었죠. 그래서 군산에서 먼저 연합치과를 만들어서 성공 모델을 만들고 싶었어요. 그런 다음 서울로 진출해서 치과뿐만이 아닌 다른 일반 병원과 어울려서 치과 병원을 세우고 싶었어요.”

하지만 사람들의 마음을 모으고 뜻을 맞추는 것이 생각처럼 쉽지는 않았다. 몇 번의 의견 조율을 거치다 별다른 진전도 없이 세월만 훌쩍 흘러갔다. 더 늦으면 시도조차 할 수 없을 거란 생각에 비록 젊은 날의 패기는 무디어졌지만 더 늦기 전에 도전해야겠다고 마음을 먹게 된 것이다. 새로 시작한다는 것은 늘 설렘과 두려움이 함께 교차하곤 한다. 오랫동안 생활해 온 삶의 터전을 뒤로 하고 멀리 통영까지 와서 다시 시작할 수 있었던 것도 바로 오래 전부터 꾸어온 꿈이 원동력이 되어주었기 때문이다.



진료만 잘 하면 된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마음을 이해해야 해요.
치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마음을 이해하는 것이 더 중요하더라고요.
사람에 대한 이해가 첫 번째인 거죠.



진료는 마음을 나누는 것

물론 어려움도 있었다. 무엇보다 힘들었던 것은 산 설고 물도 선 곳에 적응을 해야 하는 것이었다.

“진료만 잘 하면 된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마음을 이해해야 해요. 치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마음을 이해하는 것이 더 중요하더라고요.”

진료보다 소통이 더 중요하듯이 함께 일을 하는 데 있어서도 소통이 중요하다고 했다. 조 원장은 비록 작게 시작했지만 언젠가는 크게 꾸었던 꿈에 다시 한 번 도전해보고 싶다고 했다.

“중소병원이 잘 돼야 해요. 현재처럼 계속 자본 중심이 된다면 병원도 심각해집니다. 착하고 열심히 사는 사람이 승자가 돼야 해요. 쉽지 않은 시대이긴 하지만 그래도 노력해야죠. 언젠가 기회가 온다면 다시 한 번 꼭 도전해보고 싶어요.”

장 원장은 성실한 진료를 통해서 지역민들에게 보다는 의료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미르네트워킹 안에서도 어느 곳 보다 더 성실한 병원이라는 소리를 듣고 싶다고 했다. 또한 무엇보다 환자중심적인 진료를 하는 실력 있는 치과로 통영시민들에게 기억되고 싶다고 했다.

장 원장은 통영에 오면 제일 먼저 케이블카를 타고 미륵산으로 갈 것을 권했다. 미륵산 정상에 올라 한산도 앞바다가 보이는 주변 절경을 보며 절로 감탄사가 나올 거라며. 비록 미륵산 정상은 올라 한산도 앞바다를 내려보지는 못했지만 마음만은 넉넉해지는 기분이었다.



상상을 현실로,
불가능을 가능으로

박세상
불가능공장 공장장



세상은 늘 꿈꾸는 사람들에 의해서 변화되고 발전한다. 사람들이 꿈꾸기를 멈춘다면 세상도 아마 발전을 멈출지도 모른다. 불가능해 보이는 것들로 세상을 바꾸겠다고 나선 당찬 젊은이가 있다. 바로 불가능공장의 박세상 대표다.



돌맹이를 선물하고, 사람을 만나고

불가능공장이 있는 전주한옥마을. 그곳에서 그는 사람들에게 돌맹이를 나눠준다. 어릴 적 할아버지에게서 돌맹이를 선물로 받은 적이 있다는 박 대표. 오랫동안 잊고 있다 우연히 그 돌맹이를 발견하고 어릴 적 할아버지와 추억도 되살리게 되었다. 그래서 한옥마을을 찾는 사람들에게 작은 조약돌을 선물하기 시작했다.

“하찮은 것일지라도 사람이 사람에게 전달하면 의미와 가치가 생기겠다고 생각했어요. 길에 떨어져있는 돌맹이는 아무런 의미 없는 물건이지만 특별한 장소에서 특별한 사람이 선물한다면 특별한 돌맹이로 기억될 거라 생각한 거죠. 그래서 사람들에게 돌맹이를 나눠주기 시작했고 그러다 보니 이제 돌맹이는 한옥마을에 방문하면 꼭 받아야 하는 관광 상품이 되었어요.”

돌맹이를 나눠주면서 그는 많은 사람들을 만났다. 그 사람들의 생각과 고민, 기쁨을 나누고 그 속에서 필요한 역할을 깨닫게 되었다. 또한 한옥마을을 터전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위해 다양한 문화 콘텐츠를 고민하기 시작했다.

박 대표는 바로 이 전주 한옥마을을 기반으로 다



양한 프로젝트를 진행한다. ‘한복데이’와 같은 축제를 기획하고 청년들을 위한 캠프와 워크숍을 개최하는가 하면 한옥마을을 단순히 구경만하고 지나치는 관광객이 아닌, 추억이 남고 다시 오고 싶은 곳으로 만들기 위한 일들을 한다.

불가능공장에서는 ‘불가능’을 원료로 다양한 가치를 생산한다. 그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던 일, 엉뚱하고 쓸모없어 아무도 하지 않는 일, ‘불가능’으로 남아있는 것들을 수집하고 가공하고 생산해서 유통하는 일. 그것이 바로 박 대표와 불가능공장이 하는 일이다.

불가능공장이 있는 전주한옥마을.
그곳에서 그는 사람들에게 돌멩이를 나눠준다.
어릴 적 할아버지에게서 돌멩이를 선물로 받은 적이 있는데
오랫동안 잊고 있다 우연히 그 돌멩이를 발견하고
어릴 적 할아버지와 추억도 되살리게 되었다.
그래서 한옥마을을 찾는 사람들에게
작은 조약돌을 선물하기 시작했다.



포기가 아닌 변화를

그가 처음 했던 일은 2009년에 '아이엠궁'이라는 비영리단체를 만들어 대전 충남대학교 대학가를 문화 공간으로 변화시키는 것이었다. 충남대 근처 공동, 기숙사가 옮겨가면서 유동 인구가 줄자 지역상권이 침체되고 지역 상인들이 어려움을 겪기 시작했다. 또한 대학가이지만 젊은이들만의 문화도 패기도 찾아볼 수가 없었다. 이러한 것들에 문제의식을 갖고 해결책을 찾아가는 과정에서 공동을 경유하는 버스 편을 만들어냈다. 우려 속에서 시작한 아이엠궁 버스는 그야말로 대성공이었다.

2010년 법인으로 전환해 (주)아이엠궁을 설립했으며 2011년에는 사회적 기업으로 선정되었다. 212년에 전주한옥마을로 이전, 불가농공장을 설립했다. 그리고 다시 1천 명의 기획단이 참여한 '한복데이' 축제를 기획, 시민들이 직접 만들고 즐기는 축제를 치러내기도 했다.

그가 생각하는 축제란 단순히 관광객들을 불러 모으기 위한 것이 아니다. 지역 주민들이 직접 기획부터 마무리까지 함께 참여하는 축제, 그저 구경꾼이 아니라 관람객이 주인공이 될 수 있고 그 속에서 함께 웃고 행복한 축제라야 한다.

그래서 그는 전주 한옥마을을 찾는 관광객들도 한옥마을의 문화가 되고 콘텐츠가 될 수 있도록, 그래서 보다 깊은 감동을 느낄 수 있도록 하고자 한다.



또 다른 도전을 찾아

물론 지금까지의 과정 속에서 많은 어려움에 부딪치고 실패도 맛봤다. 하지만 그 속에서 더 많은 것을 깨닫고 배웠다. 현장에서 부딪치고 또 실패를 통해 배운 값진 경험을 다시 젊은이들과 나누고 그들을 돕는 일을 한다.

지난해에는 전국 6개 도시를 돌며 사회적 기업가를 꿈꾸는 젊은이들을 만나 지역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고민하고 토론하기도 했다.

그는 잠시 새롭고 낯선 모험을 시작하려고 한다. 지역과 마을을 고민하던 그가 더 넓은 세상으로 나가 더 많은 사람들을 만나기 위해서다. 4월 한 달은 미국에 머물 예정이다.

박 대표는 세상을 바꾸겠다고 '두병'이란 이름을 '세상'이라고 개명했다. 그는 모든 것은 사람에게서 시작된다고 했다. 그가 꾸는 꿈은 세상의 모든 지역과 구성원들이 협력의 관계로 행복한 삶을 사는 것. 물질이 아닌 행복이 더 큰 가치를 갖는 사회를 만드는 것이다.

그는 항상 세상을 향해 질문을 던진다. 불가능해 보이는 것들의 답을 찾아가는 것. 그것이 그가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이다. 불가능에 도전하고 불가능한 일을 실행하는 것이다. 그가 다시 돌아오면 또 어떤 불가능에 도전 할지 문득 궁금해진다.

2014 복고, 당신의 그리움을 어루만지다

‘유행은 돌고 돈다’는 말은 끊임없이 반복되어온 유행의 순환과 함께 이제는 하나의 명제로 자리 잡았다. 그리고 지금, 대한민국은 되돌아온 유행과 함께 복고열풍이 한창이다. ‘복고열풍’ 역시 하루 이틀 거론되어온 이야기가 아니다. 하지만, 요즘의 복고열풍은 예전과는 또 한 번 그 모습을 달리한 듯 보인다. 이전의 ‘복고’가 7080세대를 의미했다면, 현대의 ‘복고’는 8090세대를 의미하며, 점차 그 대상을 옮겨가고 있다.

‘복고’의 사전적 의미는 ‘옛 제도나 모양, 정치, 사상, 풍습 따위로 다시 돌아감’이다. 다시 말해 복고열풍은 그만큼 시대가 과거를 그리워하고 있음을 반증하는 현상인 것이다. 시대가 힘들수록 사람들은 옛 추억을 곱씹으며 하루하루를 살아나갈 힘을 얻는다. 언제고 찾아오는 복고열풍은 조금씩 진화하고 있다. 7080세대로 대변되던 복고열풍이 8090세대로 번져가고 있다. 이는 이 시대의 생산과 소비의 주체가 8090세대로 옮겨가고 있음을 말해주고 있다. 이들에게 1990년대는 특별하다. 아날로그와 디지털의 경계선 상에서 변해가는 세태를 고스란히 맞았기 때문이다. 빠르게 변해가는 세태 속에서, 이들은 그 시절 아날로그가 품고 있던 느리고 따스한 위로를 그리워하는지도 모른다.





문화, 8090의 마음을 훔치다

복고열풍에는 문화계가 먼저 응답했다. 영화 '씨니'가 개봉하며 관객의 마음을 향수에 젖게 하는가 싶더니, '건축학 개론', '응답하라 1997', '응답하라 1994'가 대박을 터뜨리며 대한민국에 복고열풍을 불러일으켰다. 이러한 열풍은 전 세대를 아우르는 하나의 메가트렌드가 되어 대중의 눈과 귀를 사로잡았다. 뒤이어 '수상한 그녀'도 대한민국 복고 지도에 한 획을 그었다. 이들은 세련되고 화려한 맛은 떨어지지만, 따스하게 마음을 어루만져주는 '사람과 사람'의 이야기로 공감을 끌며 스크린과 브라운관을 뜨겁게 달구었다. 극장가에서는 '러브레터(1995)'를 시작으로 '주라기 공원(1993)', '타이타닉(1997)', '4월 이야기(1998)', '시네마 천국(1988)' 등의 영화를 재개봉하기도 했다. 영화의 감동을 기억하는 이들이 다시 한 번 감동을 되새기기 위해 발걸음을 옮긴 바 있다.

한편, 1990년대를 대표하는 '빵모자', '떡볶이코트(더플코트)' 등 복고패션은 30~40대 뿐만 아니라 20대 소비자에게도 큰 인기를 끌었다. 이들은 야구점퍼, 청초끼와 같은 다양한 아이템을 믹스매치하며 자신을 개성을 드러내고 있다. 8090세대의 음악을 틀어주는 복고클럽도 속속 등장하며 가히 '복고의 황금기'를 구현하고 있다.

소비자를 잡아라, 레트로 마케팅

문화계를 달군 복고열풍은 그 자리에만 머무르지 않았다. '복고'는 추억을 향유한 세대에게는 그리움으로, 어린 세대에게는 신선함으로 각인되기 때문이다. 일명 '레트로 마케팅'이라고도 불리는 복고마케팅이 최근 광고계를 들썩이게 하고 있다. 복고마케팅은 '그 시절 추억'으로 무장해 소비자에게 다가섰다.

최근 소셜커머스 위메프는 홍콩 느와르 영화를 재현한 광고를 선보이며 복고 콘셉트에 코믹한 요소를 더해 소비자들의 눈길을 사로잡았다. 기발한 광고 컨셉과 함께 '젠틀 가이'의 대명사 이서진과 이승기의 색다른 모습을 통해 '싸다'는 간략한 메시지를 강렬하게 전달했다.

세계적 패스트푸드 회사 맥도날드 역시 레트로 마케팅을 제대로 활용했다. 자신들의 탄생년도인 1955, 한국 진출의 해 1988년도를 기념하는 햄버거를 출시한 것이다. 당시의 햄버거 맛을 재현한 햄버거로 소비자를 겨냥했다. TV광고 역시 당시를 유쾌하게 재현하며 복고 콘셉트를 충실히 보여줬다.

희대의 섹시 아이콘 마릴린 먼로로 대표되는 샤넬의 No.5 역시 복고열풍을 놓치지 않았다. No.5는 출시 당시 광고 모델이던 먼로에게 한 기자가 던진 '잠을 잘 때 무엇을 입고 자느냐'는 질문 덕에 유명세를 탄 향수다. 마릴린 먼로의 '샤넬 No.5 한 방울이면 충분합니다'라는 답변은 전 세계 여성에게 No.5를 매혹의 향수로 각인시켰다. 샤넬은 그녀의 다큐 필름과 음성으로 만들어진 광고, 그리고 당시의 인터뷰를 다시 보여줌으로써 자신들의 정체성을 공고히 다지는 데 성공했다.



아름답고 싶다면 클래식을 기억하라

'가장 클래식한 것이 가장 세련된 것이다.' 라는 말이 있다. 세월이 흘러도 변하지 않는 아름다움도 바로 클래식한 것이다. 그러한 것들을 우리는 흔히 명품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복고의 바람은 패션, 디자인, 화장품까지 미치지 않는 곳이 없다.

복고 열풍에 힘입어 지난해울엔 '버건디' 색상이 인기를 끌었다. '버건디' 립스틱을 비롯해 외투, 니트, 머플러 등 '버건디' 색상이 주목을 받았다. '버건디'란 와인색으로 프랑스 남동부 부르고뉴 산 포도주 '버건디'에서 유래했다. 90년대 유행했던 화장품이 리뉴얼되어 출시되어 20~30대 소비자들의 욕구를 자극하는가 하면 오랜 세월 꾸준히 스테디셀러의 자리를 지키고 있는 화장품들도 있다.

복고는 첨단을 자랑하는 IT제품도 예외는 아니다. 한 가전 회사에서는 돌리면 딸각거리는 소리가 나는 채널과 볼륨 다이얼까지 흑백 TV 시절의 텔레비전 디자인과 느낌을 살린 TV를 신제품으로 내놓기도 했다.



'버건디' 컬러 립스틱



참존



참존



클린앤클리어

구관이 명관, 익숙함으로 소비자를 공략한다

제과 업계만큼 복고열풍이 변하지 않는 곳도 없다. 제과 업계는 가히 신제품이 통하지 않는 불모지라 부를 수 있을 만큼 신제품의 성공률이 낮다. 롯데제과가 이태원 한 유명 세프의 레시피를 토대로 1년 가까이 준비해 출시한 '주 세프'는 '안주과자'를 표방하며 치즈와 견과류를 곁들인 고급 과자였다. 이 상품은 소비자의 별다른 반응을 얻지 못한 채 생산을 접었다.

오리온 제과가 지난 2008년 프리미엄 브랜드의 과자로 출시한 '닥터유'와 '마켓오'는 연 매출 천억 원대를 넘기도 했지만, 이러한 성장세도 올해의 불경기 속에서는 감소세로 전환됐다.

매번 고배를 마시고 있는 신제품과는 반대로, 출시 수 십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상승장구하고 있는 장수과자들도 있다. 1971년에 출시된 새우깡은 현재도 연매출 천억 원을 훌쩍 뛰어넘고 있으며, 빠다코코넛, 롯데샌드, 홈런볼, 초코파이, 포카칩 등 각 기업의 대표 상품들은 여전히 국내 제과업계의 든든한 기둥으로 자리잡고 있다.

맥주 역시 다양한 신제품과 300여종이 넘는 수입맥주가 쏟아지고 있지만, 90년대에 출시된 카스와 하이트가 지금도 시장점유율의 80%를 차지하고 있다. 소비자들의 입맛에 있어서는 새로운 시도가 자리를 잡지 못하고 있는 현상에 관해 한 관계자는 “경기가 어렵다보니 새로운 맛, 새로운 브랜드보다는 비교적 저렴한 가격으로 과거에 즐기던 추억의 맛을 찾는 경향이 강해지고 있다”고 분석하기도 했다.

복고는 오래전부터 불황기 때마다 슬그머니 고개를 들곤 했다. 불황일수록 아날로그적 감성을 위로받으려는 사람들이 늘어나기 때문이다. 또한, 이는 단순히 과거로의 퇴



마켓오



오비맥주

행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문화콘텐츠를 넘어 IT, 건설, 식료, 유통 등 전 산업의 영역에 걸친 강력한 문화트렌드로 자리 잡게 될 것이다. 이 시대의 복고열풍이 세대를 넘나드는 공감대를 만들며 사람들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길 바라본다.

부모-자녀간 의사소통으로 행복 찾기

우리아이가 말을 안 들어요!



‘아이가 내 말을 잘 듣게 만드는 방법이 없을까?’를 고민하는 부모들이 있다면, 이렇게 질문을 바꿔보는 건 어떨까. ‘어떻게 하면 아이의 말을 잘 들어줄 수 있을까?’하고 말이다. 부모와 자녀간에 ‘소통’이 필요하다. 아이 스스로 이야기하게 만들고, 부모는 진심으로 경청해야 한다. 또한 아이의 의견을 인정하고, 내가 마음 속 깊이 아이를 신뢰하고 있음을 표현한다. 말하는 사람은 자녀이고, 말을 잘 들어주는 사람은 바로 나임을 받아들일 때, 자녀와의 관계가 변화하기 시작한다.

자료제공_ 한국서비스코칭센터 박소영 대표



엄마의 고민

올해 중학생이 된 딸아이의 엄마입니다. 요즘 우리 아이가 저의 말을 들어주지 않아 고민입니다. 학교에서 돌아온 딸에게 제가 말이라도 물어보고 하면 짜증을 내며 자기 방으로 들어가 버리기 일쑤입니다. 중학교 시절은 아이의 공부와 장래를 위해 중요한 시기인데, 공부를 소홀히 하며 시간을 헛되이 보내지 않을까 걱정이 많습니다. 어떻게 하면 아이가 제 말을 잘 듣게 할 수 있을까요?



아이의 고민

중학생이 되고 첫 번째 학기다. 새로운 학교와 친구들이 아직은 조금 어색하다. 그리고 공부할 과목이 많아져 걱정이다. 오늘은 집에 가서 한 시간만 놀고, 그 다음에 ‘정말 열심히 공부해야지!’하고 결심했다. 하지만 집에 돌아오는 순간 기분이 확 나빠졌다. 엄마는 나를 보자마자 “왔니~? 씻고 공부해야지~?”한다. 치잇! 공부할 마음이 싹 사라진다. 조금 앓다 공부하려고 했는데... 엄마는 나에게 공부하란 말 말고 다른 할 말은 없는 걸까?

자녀와 소통하는 부모가 되기 위해 나의 생각을 되돌아보자.
과연 당신은 세 가지 질문에 주저 없이 YES라고 대답할 수 있는가?

좋은 부모의 첫 번째 조건,

자녀를 존중하라



첫 번째,

내 아이에게는 **무한한 잠재력**이 있다.
(내가 생각지도 못한 모습일지라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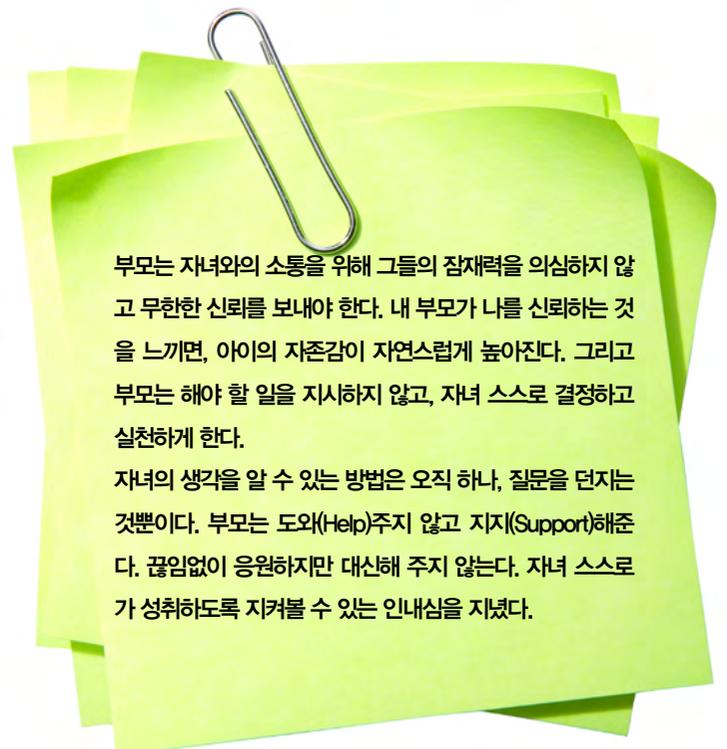
두 번째,

내 아이에게 **필요한 해답**은 아이 내부에 있다.
(내가 답을 주지 않아도 알고 있다)



세 번째,

내 아이가 성공하기 위해서 **파트너**가 필요하다.
(내가 대신해주는 것이 아니라 함께 해주는 것이다)



부모는 자녀와의 소통을 위해 그들의 잠재력을 의심하지 않고 무한한 신뢰를 보내야 한다. 내 부모가 나를 신뢰하는 것을 느끼면, 아이의 자존감이 자연스럽게 높아진다. 그리고 부모는 해야 할 일을 지시하지 않고, 자녀 스스로 결정하고 실천하게 한다.

자녀의 생각을 알 수 있는 방법은 오직 하나, 질문을 던지는 것뿐이다. 부모는 도와(Help)주지 않고 지지(Support)해준다. 끊임없이 응원하지만 대신해 주지 않는다. 자녀 스스로가 성취하도록 지켜볼 수 있는 인내심을 지녔다.

좋은 부모의 두 번째 조건,

생각을 바꾸는 질문을 던지자



생각을 확장시키는 열린 질문

'네~'라는 답을 유도하는 질문이나, A나 B 중에 하나를 선택하도록 만드는 질문은 생각의 확장을 방해하고 대화를 단절시킨다. 좋은 질문은 생각을 넓게 하도록 자극해주는 답이 정해져 있지 않은 열린 질문이다.

“학원 갔다 왔어?”

“오늘 학원에서 어떤 게 제일 재미있었어?”

“숙제 먼저 해야겠지?”

“오늘 오후에 뭐뭐 할 거야?”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

“엄마, 아빠의 어떤 점이 제일 좋아?”



생각의 방향을 바꾸는 미래형 질문

과거에 대해 물으면, 아이의 생각은 과거에 머물며 잘못된 기억만 곱씹는다. 자신감을 떨어뜨리고 스트레스만 쌓인다. 과거는 이미 지나갔고, 바꿀 수 없다. 생각의 방향이 미래로 갈 수 있는 질문을 하자.

“어쩌다 이렇게 된 거야?”

“다음에는 어떻게 하고 싶니?”

“엄마가 하지 말라고 했지?”

“이번 일에서 어떤 점을 배웠니?”





방법을 찾는 긍정형(how) 질문

‘왜?’라는 질문은 상대가 죄책감을 느끼게 하고, 변명거리를 찾게 만든다. ‘왜 못했니?’라고 물으면 아이는 못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찾을 것이다. 또, 비난이나 공격받고 있다고 느끼게 해 폭력적, 부정적 행동을 자극시킨다. ‘Why’로 시작하지 않고, ‘How’가 포함된 질문을 하는 것.

“왜 지각했니?”

“일찍 가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왜 그렇게 생각이 없어?”

“지금 제일 먼저 어떤 일부터 하면 좋을까?”

좋은 부모의 세 번째 조건,

아이의 동의를 얻자!



자녀와 소통하는 부모가 되기 위해 혼자만 열심히 해서는 효과가 없다. 가장 먼저 아이에게 그리고 가족 전체에게 동의를 구하고 함께하도록 이끄는 노력이 필요하다. 가족간 소통에는 ‘곱셈의 법칙’이 적용된다. 한 두 사람이 아무리 열심히 하더라도 가족 중 단 한 사람이라도 ‘제로’가 되면 전체 모두는 곱셈의 법칙에 따라 제로가 되어버린다. 아이에게 이렇게 먼저 말해보자.

엄마가 지금부터 너의 의견을 묻는 질문을 많이 하려고 해. 처음에 조금 어색하더라도 편안하게 대답해 줄 수 있겠니? 혹시 엄마가 다시 화내면서 명령조로 말하면 네가 엄마에게 말해줄래~?



자녀를 위한 질문 목록

-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될 수 있을까?”
- “앞으로 1년 동안 열심히 해보고 싶은 건 어떤 거야?”
- “네가 그 친구라면, 너는 어떻게 했을까?”
- “그럴 때, 어떤 기분이 들었어?”
- “네가 선생님이라면, 규칙을 어떻게 바꿔보고 싶어?”
- “그렇게 하려면, 지금 무엇을 바꿔야 할까?”
- “그 일을 할 때, 누구한테 도움을 청하면 좋을까?”
- “옛날에 ()을 잘했을 때와 지금은 어떤 게 달라?”
- “네가 하기로 결정한 건, 어떤 거야?”
- “()이 너에게 얼마나 중요한 의미이니?”
- “지금 어려움을 이겨내면, 네가 어떤 걸 얻게 될까?”
- “다음에 다시 한다면, 어떻게 하고 싶니?”

취미와 경험을 공유하는 재능기부의 시대

자신의 삶 속에서 빛나는 재능으로 인정을 받으며 그 삶을 만족스럽게 영위하던 사람들을 우리는 '성공한 사람'이라 말한다. 하지만 '성공'의 수단이 된 '재능'은 사실 성공한 사람에게만 있는 건 아니다. 백만 명의 사람이 있다면 백만 가지 재능이 있듯 모든 평범한 사람들에게는 재능이 있고 그 재능들이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만든다. 그리고 그 재능을 나눈다면 굳이 혼자만의 성공이 아니라도 좋을지 모른다. 작던 재능이 더 큰 빛이 되어 함께 사는 세상을 밝히면 모두 함께 성공을 누리는 것 일터이니.



전문영역(돈) + 노력(시간) = 재능기부

바쁘게 돌아가는 일상에서 시간과 노력을 들여 다른 누군가를 돌보는 일은 쉽지 않다. 그런 까닭에 돈이나 현물이 아닌 자신의 시간과 재능을 들여 누군가를 돕는다는 것은 교환가치인 돈으로 환산되는 개인의 재능과, 시간의 의미가 포함된 것으로 기부와 자원봉사를 모두 모아놓은 형태라고 할 수 있다. 재능기부는 '프로보노(probono)'에서 그 시작을 찾을 수 있다. 프로보노는 변호인을 선임할 형편이 되지 않는 사람들에게 무상으로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공익을 위하여'라는 의미의 '프로보노 퍼블리코(probono publico)'에서 시작되었다. 과거 사회적 약자를 위한 법률상담이나 법률구조활동, 오지나 낙도를 찾아 의료봉사를 해 온 우리나라의 의사와 간호사들은 이미 재능기부를 해 왔다. 이런 재능기부가 최근 들어 다양한 사회 분야로 확산이 되었고, 자신의 재능을 나누려는 것으로 꾸리려는 이들이 늘어나면서 전문직종사자를 비롯해 평범한 일반인은 물론 은퇴 후 인생 제 2막을 연 이들에게까지 광범위하게 확산되고 있다.

probono publico

프로보노 퍼블리코 공익을 위하여



기부의 공통점, 누구나 또 언제나 무엇이든

재능기부는 자랑할 만한 특별한 기술이 없다고 해도 자신에게 감춰둔 소질을 살리면 얼마든지 참여가 가능하다. 요리, 독서, 종이접기까지 내가 즐겁게 누리고 있던 취미라도 누군가에게는 좋은 경험으로, 또 도움으로 다가서기 때문이다. 고령화 사회 속, 범위가 다소 넓어진 은퇴자들을 상대로 한 심리조사에 따르면 가장 행복한 은퇴자들은 직장에서 퇴직한 후 마음껏 휴식을 취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일을 계속하거나 자원봉사로 사회에 봉사하는 사람들이었다. 그렇기에 재능기부는 경험과 연륜이 필요한 은퇴자들에게 적합한 기부방식이자 봉사 활동이기도 하다. 또한 자신의 봉사활동의 영역을 넓히는 기회이자 봉사의 대상과 교감을 할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하다. 이는 굳이 다른 이에 대한 봉사에만 뜻이 있는 건 아니다. 내가 가진 모든 것에, 내가 만나는 모든 이에 감사하며 사는 것으로 주변의 '행복'의 질과 '삶'의 질을 함께 높이기 때문이다. 결국, 지난 세월동안 내가 시간과 노력을 투자해 쌓은 경험에 감사하고, 그것을 다른 누군가가 기쁜 마음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하는 것이 재능기부의 시작이다. '가진 것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이든 그것을 모두와 함께 나누라'고 했다. 그것이 곧 행복해지는 방법이다.

재능기부에 관심은 있지만 어떻게 참여하는지 모르겠다면?

인터넷 검색사이트 창을 열고 '재능기부'만 입력해도 다양한 방법이 나열된다. 많은 사람들이 재능기부에 관심이 많고 이미 재능기부에 참여하고 있는 것이다. 내가 가진 것으로 어떤 도움이 될 수 있을지 망설인다면 가까운 사회복지기관이나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자원봉사센터를 찾아가 보자. 생각보다 많은 재능기부의 영역이 있음에 놀라고 내가 가진 작은 능력이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이 다시한번 놀라게 될 것이다.

스마일 재능뱅크(www.smilebank.kr)에서는 재능이 있는 개인, 기업, 단체가 기부하고자 하는 재능을 등록하면 그 재능이 필요한 농어촌과 연결해 준다. 농어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재능기부다.

BBB KOREA(www.bbbkorea.org)는 2002년 월드컵에서 통역자원봉사를 하던 시민모임에서 시작되었는데, 통역이 필요한 사람이 전화를 하면 통역을 제공하는 언어통역 자원봉사다. <빅이슈코리아>처럼 많은 사람들의 재능기부로 풍성한 읽을거리를 만들어 나누는 잡지가 생기기도 했고, 번역인들이 번역 저작권을 내어놓고 더 많은 독자에게 그의 글을 나누기도 한다.

지방자치단체에서도 다양한 재능기부를 신청 받고 있다. 작은 도움으로 지역 골목길에 벽화거리가 되고, 시민이 강사가 되어 문화센터의 강좌를 운영하는 경우도 있다. 또 특별한 재능 없이 취미를 위해 수강한 수직침이나, 제과, 공예 등의 강좌를 수료하고 이를 재능기부로 이어가는 경우도 많다.

전직 대기업 임원 출신들이 활발하게 참여하는 중소기업 경영닥터 제도도 눈에 띈다. 고용노동부의 사회공헌 일자리 역시 이러한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퇴직인력의 재능기부의 장을 넓히는 역할을 하고 있다.

MIRnews

당신의 미르!
알고 계신 것 보다 많은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2014 . SPRING

미르는 의료 및 사회봉사, 미르갤러리, 미르 아카데미를 통한 교육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주한 리투아니아
대구 · 경상도 명예영사관 개관식
2014년 4월 17일(목) am 10:45 ~ pm 2:00

개관식 행사 (10:45 ~ 12:00)
대구미르치과병원 10층
대구광역시 중구 공평동 12

오찬 (12:00 ~ 14:00)
노보텔 VIP A&B룸
대구광역시 중구 국제보상로 611

미르치과네트워크 박광범 회장 리투아니아 명예영사 임명

박광범 회장은 2007년부터 치의학 기술 및 의료 서비스 정보 보급 및 교육사업 구축, Lithuanian University of Health Sciences 임플란트센터 연구기술 지원과 한국인 유학생을 지원하는 등 리투아니아와의 교류 활동을 활발히 이어왔다.

2월 17일 주한 리투아니아 대사(Lina Antanaviciene)의 대구 미르치과병원 방문과 함께 리투아니아 대통령 달리아 그리바우스카이테(Dalia Grybauskaitė)로부터 명예영사 임명장 및 인가장을 외교부로부터 수여받고 명예영사로 활동한다.

대구 · 경상도 리투아니아 명예영사관은 4월 17일 대구미르치과병원 10층에 개관한다.

명예영사란?

본국에서 파견되지 않고 접수국에서 본국인이나 그 국가의 국민 중에서 위촉에 의해서 선임된 영사로서 한국과 리투아니아 양국간 의료 교류를 위한 가교 역할을 담당할 예정이다.



리투아니아

리투아니아 공화국은 벨라루스, 라트비아, 벨라루스, 폴란드와 접하고 서쪽으로는 러시아령인 칼리닌그라드와 발트해가 있다. 행정구역은 10개 주(apskritis)로 이루어져 있다.

한국과 리투아니아는 1991년 10월 14일에 정식 수교를 맺었는데 당시 바그노리우스(Vagnorius) 리투아니아 총리가 방한하여 수교의정서에 서명했다. 주(駐)리투아니아 대사관은 주(駐)폴란드 대사관이 겸임하고 있다.



미르아카데미 디지털분과 세미나

3월 30일 (일) 10:00~16:00
 Dr.신준혁 _ Waiting for Digital art : 최신 CAD/CAM 트렌드
 Dr.김종철 _ 임플란트 반듯하게 심기



미르아카데미 교정학분과 세미나

4월 3일 (목) 12:00~18:00
 Dr.류경훈 Control of 2nd.molar
 Dr.하도원 Scissors bite correction
 Dr.김용철 제2대구치의 수직적 control



경산 3월 25일 환자 응대 서비스 교육



목포 원장님 원내세미나



목포 3월 3일 ~ 27일 / 15차에 걸친 신입직원 교육

진주 1월 20일~2월 4일
 보건대 치위생학과 실습

진주 신입사원교육 일정
 2월 4일 감염관리 교육 - 김은지 진료팀장
 2월 11일 스케일링교육 - 손나리 진료팀장
 2월 18일 주의사항 교육 - 김은지 진료팀장
 3월 14일 전자차트 예비서버 구축 - 이중화

진주 2월 28일~4월 26일
 경북대학교 치과대학원 수련의 실습

진주 진주보건대학 치위생학과 강의
 3월 5일, 3월 7일, 허준용 원장, 치과임플란트의 종류 및 시스템
 3월 12일, 3월 14일, 황준환 대표원장, 치과임플란트를 위한 해부학 및 생물학
 3월 19일, 3월 21일, 허준용 원장, 환자 상담, 진단 및 평가
 3월 26일, 3월 28일, 노창세 원장, 멸균과 소독 및 감염관리

전주 3월 1일부터 직제개편 실시
 팀장 Rotation제도로 개편

전주 4월 5일 ~ 6일 정희웅 원장
 Live Surgery Course, 전주미르치과병원 임상연구소

전주 대전임상치주-임플란트코스 정희웅 원장
 Basic : 4월 23일 ~ 5월 21일
 Advanced : 6월 14일 ~ 8월 9일
 메가젠임플란트 대전 대리점

MIR news

미르소식



목포 3월 22일 박진호 원장
전라남도치과의사협회 회장 취임



대구 1월 11일 하도원 원장
TBC클리닉 건강365 방송출연



전주 3월 16일 오상훈 원장
닥터MBC 방송



경산 이승엽 원장 메가젠임플란트
'AnyRidge' 한-러 온라인세미나 진행



침단 2월 22~23일 무안청계 전직원 워크샵



전주 4월 14일~16일 전직원 제주기행

목포 4월 9일(수)부터 상반기 소아치과견학 시작
4월 1일부터 초·중·고·성인 내원 및 출장 구강검진 시작

목포 6월 ~ 9월 중 의료기관평가
인증 받을 예정

부천 보건소주관 경로당 구강보건교육 실시
김세라 부장, 임경은 실장

MIR news

봉사



경산 3월 18일 미르사랑 직원 헌혈



대구 3월 15일 사랑의 헌혈 진행

MIR news

미르소식



진주 3월 25일~26일
진주보건대학 치위생학과 1학년 견학



대구 수련의 수료발표회
수련의 정연강, 정성국, 이은정, 한유진 참석



대구 월요교육 _ 친환경 수세미 만들기



대구 1월, 2월 최우수 친절직원 시상
(3월-김수경 치과위생사)



안산 김현경 원장
대한치과건강보험청구사 2급, 3급 수석



부천 대한치과보험청구사협회
공인강사 수석 - 임경은실장

첨단 3월 10일 컨퍼런스-전신질환과 치과치료의 관계
3월 31일 감염관리교육

첨단 3월 26일 박석인 원장
전남대학교 치의학전문대학원 특강

첨단 4월 ~ 6월 매주 목요일
전반기 어린이집, 유치원 구강보건교육 및 치과견학

MIR news

전시



대구 3월 12일 갤러리미르 대표 박현진 원장
개관전 'What about LOVE' 오픈식 거행



진주 3월 12일 ~ 3월 19일 갤러리 미르 아트홀
강혜순 미술개인전



따사로운 햇살과
포근한 바람,
향긋한 꽃내음이
봄을 전합니다.

미소 오는소리

 미르치과 네트워크

거제미르치과병원 경산미르치과병원 구미미르치과의원 뉴욕미르치과의원 대구미르치과병원 목포미르치과병원 밀양미르치과의원
부천미르치과의원 상무미르치과병원 서대구미르치과의원 서울미르치과의원 수원미르치과의원 순천미르치과병원 안산미르치과병원
옥포미르치과의원 전주미르치과병원 진주미르치과병원 창원미르치과의원 첨단미르치과병원 통영미르치과의원 포항미르치과병원